

# “광주·전남 행정통합, 산업·경제 대응 전략 필요”

## 광주경총 “수도권 과밀 해소 등 산업 경쟁력 한층 강화”

### 청년인구 유출·전통 제조업 위축·도시 중심 개발 우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가 통합에 따른 산업·경제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통합은 행정구조 개편을 넘어 지역 산업 경쟁력과 성장 전략을 다시 설

계하는 문제”라며 경제·산업 차원의 종합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산업 구조 전환, 수도권 과밀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필수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양 지역은 추진기획단을 출범 시키고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주민과 산업군별 공청회를 순회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산업적 파급효과와 관련해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역 주민의 51.5%는 통합 찬성 이유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꼽았으며 행정비용 절감과 공공서비스 효율화 역시 주요 기대 효과로 제시됐다. 다만 전통 제조업 위축과 도시 중심 개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광주경총은 행정통합 이후 중점 과제를

산업 육성, 균형발전, 신산업 육성으로 구분했다.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우선 지원과 메가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동부권 특별지구 지정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2.3%로 가장 높았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풍력, 자동차 산업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광주경총은 특별법 특례를 통해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농수축산(클러스터 설립), 반도체 특화단지, AI 메카클러스터, 자동차(모빌리티) 집적화 단지 등 산업 전환 지원 방안이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반면, 청년 인구 유출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업 정책과 함께 정부 여권 개선과 청년 유입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지난 60년간 인구 규모가 감소한 유일한 권역이 호남”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을 통해 국가 예산과 국책사업 유치가 용이해지고, 반도체·AI·에너지 산업을 3대 권역으로 분산 배치해 27개 시군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역 교통망 확충과 인프라 투자로 교통비 절감과 청년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 전력망 혁신 마스터플랜 공개



한전은 27일 나주 본사에서 ‘K-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권과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을 적기에 연결하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 한전, 에너지 대전환 속도…전력망 신속 구축

### 호남권 재생에너지-수도권 연계 전력 인프라 확장 제도·기술 혁신 18개 과제로 ‘13년 소요 구조’ 손질

한국전력이 전력망 장기 구축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핵심으로 한 혁신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한전은 27일 나주 본사에서 ‘K-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권과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을 적기에 연결하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최근 첨단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 지연으로 전력계통 수용력은 한계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력망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왔다.

검토 결과,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전력망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기술 혁신 과제로 총 18개 핵심 전략을 도출했다. 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유희부지를 활용한 변전소 입지 확보, 송전선로 건설공사 조기 발주를 통한 공기 단축 등 7개 과제를 마련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도심지 발파 소음을 차단하는 ‘기계식 무진동 수직구 굴착 공법(VSM)’ 도입과 기존 대비 용량을 1.5배 확대한 ‘345kV 대용량 케이블’ 개발 등 11개 과제를 발굴했다. 도심 시민과 공정 지연 요인을 동시에 줄여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오는 2028년을 기점으로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대규모 전력망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재·인력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핵심 시공자원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자재와 장비, 전문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 공사 물량 집중에 따른 병목 현상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한전은 정부와 함께 지난해 3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력망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법제화를 추진했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단가를 18% 인상하고 토지 소유주 보상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해소와 첨단산업 전력 공급은 국가 경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송전망 평균 건설 기간인 ‘13년의 벽’을 허무는 혁신과 시공 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적기에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 공개

### 동계올림픽 최초 ‘빅토리 셀피’ 운영…시상대에서 직접 촬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90개국 3800여명의 선수 모두에게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선수들은 선수촌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승리의 순간까지 대회 전 기간 동안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을 통해 올림픽의 감동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삼성전자는 IOC와 협력해 동계올림픽 최초로 ‘빅토리 셀피(Victory Selfi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빅토리 셀피’는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

한 영광의 순간을 시상대에서 직접 셀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 선보인 프로그램이다.

이번 올림픽 에디션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참가를 기념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했고,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서비스를 탑재했다.

제품 후면에 블루 색상을 적용해 올림픽의 화합과 스포츠맨십, 그리고 삼성전자의 정체성을 담았다.

제품의 프레임에는 골드 메탈 색상을 적용해 최고를 지향하는 선수들의 노력과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과 함께



제공되는 ‘투명 마그네틱 케이스’에 부착돼 있는 파란색 원형 자석은 승리의 모터프린 황금빛 월계수 잎이 감싸고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의 배경 화면은 특별하게 디자인된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테마가 적용됐다.

스케이트 날이 빙판에 만드는 곡선 문양을 형상화한 이번 테마는 올림픽 정신과 선수들의 열정을 의미한다. 정승기 기자

## 삼성전자, 고효율 히트펌프 출시…유럽 공략

### 신제품 ‘EHS 올인원’, AI 절약모드 등 편의성 높여

### 사계절 내내 냉난방 운수…한국시장도 연내에 출시

삼성전자가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신제품으로 유럽 냉난방공조(HVAC)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는 공기와 물을 동시에 활용해 냉난방과 운수를 제공하는 2026년형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EHS 올인원’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HS’는 주거 및 상업시설에 난방과 운수를 제공하는 히트펌프 기반 솔루션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도 적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이번 신제품은 실외기 한 대로 공기 냉난방과 바닥 난방, 급탕까지 제공해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렸

다. 특히 공기와 물을 동시에 활용해 공기 냉난방과 바닥 난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일교차가 큰 봄과 가을철에는 공기 냉방으로 거실을 선선하게 유지하고, 침실은 운수를 활용해 바닥 난방을 가동할 수 있다.

또 이번 신제품은 여름철 냉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실외기 외부로 방출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열 회수’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 ‘열 회수’ 기능을 활용하면 물 가열에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을 최대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다.

이번 신제품에는 다양한 주택 외부 공간

과 조화를 이루면서 설치 편의성도 뛰어난 디자인이 적용됐다.

실외기에 적용된 프로펠러 팬의 크기를 확대하고 고효율 모터를 적용해 팬 개수를 기존 2개에서 1개로 줄였다.

또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영하의 날씨에도 최대 65도의 난방용 운수를 공급하고, 영하 25도의 혹한기에도 난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임성택 삼성전자 DA사업부 에어솔루션 사업팀 부사장은 “에너지 효율과 설치·사용 편의성까지 높은 유럽 맞춤형 EHS 올인원 제품으로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국내 시장에도 혁신 HVAC 솔루션을 선보여 글로벌 HVAC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

2026년 광남일보 제14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 모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새로운기회를 만드십시오.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석식 제공)

강의장소 | 추후 결정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 3월~7월 / 2학기 :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ibo2@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 분야) (영어) (영어)



김동규  
성악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연구위원  
<트렌드코리아> 공저자



광남일보